



국산녹용, 위성타고 날아 오르다

- 본회 김수근 회장 ABS농어민방송 출연 -

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(skylife), ABS 농어민방송을 통해 국내 양록산업 및 국산녹용 등이 홍보되는 시간이 마련됐다.

ABS농어민방송은 지난 12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체 제작한 '특별대담-양록협회장에게 듣는다'라는 프로그램을 위성을 통해 방영했다.

프로그램은 총 45분 분량으로 본회 김수근 회장과 ABS농어민방송 박병국 사장과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양록산업에 대한 소개와 국산 양록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.

김회장은 박병국 사장과의 대담을 통해 △ 본회 소개 및 활동 사항 △ 국내산 녹용의 우수성 △ 사슴고기 대중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△ 양록자조금제도 △ 양록산업 발전 전망 △ 녹용 수입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을 알기쉽게 설명했다.

김회장은 대담 말미에 “소위 주요축종으로 불리워지는 소, 돼지, 닭 위주의 축산정책에 사슴이라는 분야가 자구노력만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

일”이라며 “주요축종의 변두리에서 어렵게 성장해 온 사슴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냉철히 점검해 보아야 할 때”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역설기도 했다.

ABS농어민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했던 인사들은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장,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으로 양록협회 회장의 출연은 이례적인 일이다.

본회 김수근 회장은 그동안 농민단체협의회, 축산단체협의회 등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국내 양록산업의 홍보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이를 전해들은 농어민방송 박병국 사장이 방송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이날 방영된 내용은 ABS농어민방송 홈페이지(www.abs.co.kr) 동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.

한편 지난 11월27일 ABS농어민방송 대담 녹화를 마친 김수근회장은 박병국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산녹용의 방송 판매 방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인 국내 양록산업 홍보를 부탁했다. **한도영**